

# 스마트폰, AI 중심 경쟁구도 이동... 삼성 선도·애플 추격

삼성 S시리즈 AI 기능 대폭 강화  
향상된 온디바이스 성능 제공

애플 음성비서 '시리' 고도화  
아이폰 'AI 서비스 플랫폼' 전환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갤럭시S26 시리즈를 보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 시리즈를 앞세워 AI 스마트폰 경쟁력을 주도하는 가운데 애플이 관련 시장에서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고 추격에 나서고 있다.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중심이던 경쟁 구도가 AI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시장 판도가 빠르게 바뀌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에이전트 AI'를 앞세워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애플 역시 AI 스마트폰 시장 내 입지를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구글 출신 임원을 AI 제품 마케팅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음성비서 '시리'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애플은 주요 기술기업들보다 AI 경쟁에서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 2024년 개최한 연례 세계개발자대회(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와 시리의 AI 업그레이드 등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기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출시가 연기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AI 담당 임원을 교체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자체 '기본 모델' 대신 구글 제미니를 채택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 조치를 취해왔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내 AI 경쟁에서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는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 17에 달렸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이폰17은 16코어 뉴럴 엔진을

탑재한 A19 프로 칩을 기반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한다. 이를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와 확장된 상황별 기억 기능을 갖춘 '시리 3.0'을 선보인다.

특히 애플은 아이폰 자체를 'AI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에 내려 받은 제미니나 클로드 등 AI 챗봇을 시리로 호출하는 도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 시리즈에 빅스비를 비롯해 제미니, 퍼플렉시티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운영체제(OS) 수준에서 연동하고 이용자의 명령에 따라 택시 호출이나 음식 주문 등을 수행하는 기능을 도입한 것과 유사하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AI 기능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지난 2월 갤럭시S26 시리즈를 공개하며 AI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갤럭시S26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프로

세서로 구동되는 '갤럭시 AI 4.0'을 탑재해 향상된 온디바이스 성능과 스마트폰 AI 기능을 제공한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AI 기능 강화도 이뤄졌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향상된 ISP(이미지신호처리)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4800만 화소 트리플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했다. 또 증기 챔버 냉각 시스템을 통해 고성능 AI 작업과 게임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AI 성능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단순한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경쟁을 넘어 사용자 경험 전반을 좌우하는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스마트폰 경쟁력은 얼마나 정교한 AI 기능을 구현하고 이를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LG이노텍, 자율주행 솔루션 고도화

美 어플라이드 인튜이션 파트너십  
국내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 진행 계획

LG이노텍은 미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어플라이드 인튜이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LG이노텍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운행하는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의 테스트 차량에 자체 개발한 센싱 모듈을 장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대한 양의 자율주행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는 지역별 도로 인프라, 교통 흐름, 기후 조건에 따른 정보를 포함한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반영해 모듈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뿐 아니라 LG이노텍은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의 소프트웨어 및 주행 테스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직접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카메라·라이다·레이더를 결합한 '복



(왼쪽부터) 문희수 LG이노텍 사장, 카사르 유니스 어플라이드 인튜이션 CEO가 양사의 협력을 다짐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LG이노텍

합 센싱 솔루션' 등 현재 개발 중인 신기술을 실제 주행을 통해 검증할 수 있어,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G이노텍은 이번 협력을 통해 자체 '가상 센서'를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의 시뮬레이션 툴에 적용한다. '가상 센서'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센서실물의 특성을 그대로 가상 환경에 구현한 것이다.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은 글로벌 상위

20개 완성차 업체중 18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이 회사의 시뮬레이션 툴에 카메라·라이다·레이더를 아우르는 센서 '폴세트'를 구현한 사례는 LG이노텍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완성차 업체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실제 주행과 유사한 수준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을 현실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할 수 있어서다.

향후 LG이노텍과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은 양사의 센싱 모듈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을 앞세워 공동 프로모션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희수 LG이노텍 사장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어플라이드 인튜이션과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의 새로운 기준이 될 탁월한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피지컬 AI 시대를 이끄는 모빌리티·로봇 센싱 분야 글로벌 톱티어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 LS일렉, 매년 사무직 10% 이상 신규 채용

인재 기반 글로벌 전력 시장 공략

LS일렉트릭이 전력 슈퍼사이클 속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재 확보를 내세우고 채용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LS일렉트릭은 매년 사무직의 약 10%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구자근 LS일렉트릭 회장의 인재 중심 경영 기조에 맞춰 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상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006년부터 약 20년 가까이 공채 제도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채용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젊은 인재를 꾸준히 확보해 왔다. 여기에 2023년부터는 채용연계형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해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인력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상하반기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 연구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학협동학과 산학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지난 2024년부터는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 인근 대학과 연계한 채용연계형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고용 안정성 강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마련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구자근 LS일렉트릭 회장은 "전력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이 미래 경쟁력을 준비할 결정적인 시기"라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결국 사람이며, 사업을 주도할 우수 인재 확보가 곧 기업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 삼성전자 '인피니트 AI 와인 냉장고' 출시

'AI 와인 매니저' 기능 탑재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와인 정보 확인부터 보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리미엄 와인 냉장고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인피니트 AI 와인 냉장고'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AI 비전(AI Vision)' 카메라 기술을 활용해 와인 입출고와 보관 위치, 라벨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와인 매니저' 기능을 최초로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인피니트 AI 와인 냉장고는 도어가 열리면 카메라가 와인병의 입출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며 수납된 와인의 라벨을 분석해 이름·품종·빈티지 등 세부 정보를 스마트싱스 앱에 기록한다.

보관 위치가 변경되거나 와인을 꺼낼

경우 리스트가 실시간 업데이트돼 사용자는 재고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관 성능도 강화됐다. 최대 101병까지 수납 가능한 내부 공간은 상·중·하 3개 구역으로 나뉘어 3°C에서 18°C까지 개별 온도 설정이 가능한 '트리플 냉각 존'으로 구성됐다.

중앙의 '멀티팬트리'는 와인뿐만 아니라 햄·치즈·과일 등 곁들임 식재료에 맞춰 5가지 모드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전면 도어에는 UV 차단 3중 클래스 소재를 적용해 외부 자외선을 약 92% 차단하며 정온 유지를 돕는다.

디자인 면에서는 인피니트 라인 특유의 '옛지 프레임'과 블랙 메탈 소재를 적용했다. 700mm 깊이의 키친핏 설계로 빌트인 룩 구현이 가능하며 터치나 음성으로 문을 여는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을 탑재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한화솔루션, 재무 부담 완화... 태양광 사업 '청신호'

대규모 유상증자 기반 수익 개선 전망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재무 부담 완화와 미래 태양광 기술 투자 여력 확대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태양광 사업 정상화에 따른 1분기 흑자 전환 기대도 맞물리면서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주주 가치 제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를 이어왔지만 태양광·석유화학업황 둔화 영향으로 재무 부담이 커졌다. 다만 최근 공개한 유상증자 계획이 이행되면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9000억원 규

모의 투자로 미래 태양광 기술 선점에 나설 수 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7일 보고서에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과 채무 상환이 이뤄지며 재무 부담이 완화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태양광 부문에 대해 non-PEF 수요 기반과 카터스빌 공장의 전 공정 정상 가동에 따른 현지 수직계열화, 보조금(AMPC, DCA) 수령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올해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말 미국 내 셀 통관 이슈가 해소되면서 달튼

과 카터스빌 모듈 공장 가동이 정상화됐고 카터스빌 셀 공장도 하반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 초부터는 중국산 규제와 유가 상승 등 대외 환경 변화로 모듈 판매량 증가와 판매단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태양광 부문의 수익성 개선 기대를 키우고 있다.

최대주주인(취한화) 유상증자에 최소 100%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봤다. 한국기업평가는 약 7000억원 수준의 소요 자금은 보유 자산 매각과 채권 유동화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어서 재무 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